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본 성의 윤리

변영인 (동서대 기독교상담심리학 교수)

I. 서론

최근 들어 성교육의 그 절실성이 부각되고 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의 주제로 삼기에는 몹시 불편해 하던 성이야기가 가정교육의 시급함과 절실함의 통감으로 성교육의 절실성이 요구되는 교육의 한 장르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성이라는 조심스러운 과제가 교육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려 하는 것이 염려스럽다.

性の 문제가 우리 자녀들을 세차게 강타하고 있는 이때에 실질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오히려 기독교 성 교육자와 상담자들은 좀 더 성교육과 성 상담의 필요성과 그 위기성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에 맞춘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자리 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전 세대는 일 중심의 가치관 시대, 즉 생산 주의적 사고가 일생을 일관하던 시대 사람들과 자녀시대, 즉 놀이와 소비의 시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감정, 즉 느낌으로만 처리하고 받아들이려는 시대에 요즘 자녀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크게 자극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性)이라는 주제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더 나아가서 오늘까지 우리가 기꺼이 발전시킨 현대문명의 극대화는 인간의 성을 본질로부터 왜곡시키는데 기여하는 바가 컸다.(강영안, 1994) 이제 성이라는 주제 앞에 청소년 자녀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기독교인 가정의 부모들조차 그 본질을 놓친 지 오래임을 안타까이 여기며 반드시 재정립해야 할 필요를 갖는다.

사람을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는 인본주의는 도덕성을 잃을 상업과 잡종 교배되어 소비성과 초 스피드성의 물량주의를 팽배시켰다.(강지원, 1991) 이제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통한 성의 올바른 개념과 가치관을 형성시키고 나아가 이것이 우리의 가정교육과 교회교육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가야한다는 절실한 필요성을 인식케 하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단호한 가치관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대사회와 문화에 만연되어 있는 죄 성의 성의식과 그 실제에 단호히 맞설 수 있는 구분된 그리스도인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이제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본 성교육 및 상담을 비롯하여 性の 사회적 접근 심리적 접근 문화적 접근, 생물학적 접근과 그 실제성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현대 사회의 性 철학과 그 윤리성의 왜곡

인류지성의 고귀한 열매인 학문은 시대와 시대, 문화와 문화를 거듭하면서 발전해왔다. 즉, 인류는 나름의 지혜를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 시킨 것이다. 비록 그 학문이 기독교 윤리적 절대자를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윤리에 있어서 보편적인 것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세웠고 그것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아래와 같이 성의 철학과 윤리의 자리 매김을 향해 살펴본다.

1. 현대 사회에서 본 성의 목적론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성에 대한 논쟁은 성을 그 자체로 목적론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단순

하게, 명확한 도덕적 목표에 부합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인간의 성이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목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혼전순결, 이혼, 재혼, 동성에 그리고 기타 성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토론은 더 이상 인간의 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해야 혹은 말아야 되느냐 혹은 하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토론이 아니다. 그들은 이제 인간의 성적인 행동 그 자체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토론하게 된 것이다 이제 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절대가치에 기준을 둔 인간됨을 규정하는 가치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성행위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 버렸다.(권장희, 1995)

성이 목적이 된다는 것은 성이 윤리적으로 가장 우선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도 살폈듯이 윤리적으로 우선적일 수 있는 것은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에 한해서이다. 필수는 잉여에 우선한다. 그렇다면 성¹⁾은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가?

성은 필수적인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필수적인 면부터 살펴보면 성은 생식과 관련하여 필수적이다. 생명을 잉태하고 자손을 번식시키는 데는 이성간의 성 접촉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방법도 있을 수 없다. 생명과 관련하여 성은 필수적인 면을 가지고 동시에 목적론적으로 다루어 질수 있다.

다음으로 성에 있어서 필수적이지 않은 면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대부분의 성 해방론자들의 오해는 바로 필수적이지 않은 면을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데서 비롯한다. 성은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이지 않다. 우선 청소년기까지의 삶을 살펴보아도 사람은 성 없이도 20년 가까이를 아무 이상 없이 살아간다. 성장초기로부터 20여 년 동안 성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상이 있음을 증명한 논리를 아직 발견치 못했고 오히려 지나치게 일찍 성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인생을 회의하고 병리적 사회현상에 기여하게 된 경우는 비밀비재하다. 또한 객관적으로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의 일탈과 부적응은 대부분 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청소년 시기를 지났을 때는 성이 필수적인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또한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인류역사에 기여한 위대한 성인(成人)들은 성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결코 소수라고 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성을 절제하고도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종교적인 목적에 의해서 어떤 이는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평생을 성생활 없이 살아간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성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보다 뜻을 품고 수절하는 사람의 삶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훨씬 고상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이다. 만약 성이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면 성을 포기한 사람의 삶은 병리적인 삶이어야 하나 실상은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성은 성보다 필수적인 다른 가치에 의해 규정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성은 성 그자체가 목적론적으로 다루어 질수 없다는 결론이다.

2. 생식의 도구로서의 성

인간의 성애(性愛)는 동물이 결코 소지하지 못하는 요소 즉, 정신적인 요소가 내재해 있다. 사랑, 믿음, 신뢰 등의 가치들은 동물적인 성적 본능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다.(손봉호, 1994) 만일 한 인간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단순히 성적인 충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아무데서나 상대를 가리지 않고 성행위를 나누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이혼에서 대다수의 사유가 되는 음행에 대해 단순히 생물학적 본능의 차원을 고려해서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해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상호 신뢰에 대한 배반이라고 규정하여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성을 사용할 때 정신적인 요소를 배제했을 경우 종종 동물들의 경우보다 더욱 비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혼음, 강간, 동성애 등은 동물조차 하지 않는 성행위들이다.

1) 여기서의 '성'이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겪는 종합적인 성적 에너지 혹은 성적인 현상 전체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행위 '섹스'에 국한된 개념이다.

앞서 밝히기를 성은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성은 생식을 위한 수단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생식 외에도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신뢰의 표현이 있다. 사람들은 성을 나누며 정신적인 신뢰를 육체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느낀다.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안다는 표현을 부부관계에 적용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다.(John R. W. Stott, 1985) 부부간의 성관계는 다름 아닌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III. 성의 궁극적 평가 기준

Martini Buber(1977)는 인간의 관계를 <나-너 (Ich-Du)>와 <나-그것(Ich-Es)>의 두 그 두 근원어(Grandworte)로 설명했다. 우리가 '나'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나-너> '나'이거나, <나-그것>의 '나' 이렇게 둘 중 하나이다.

<나-그것>의 관계는 인간의 객체적인 경험, 즉 지식의 세계 안에 있는 것이요 <나-너>인간의 주체적인 체험 즉, 인격의 세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인간은 관 계속에서 살아가고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 관계는 인격적인 것과 비인격적인 것으로 나뉜다. 여기서 부버는 만남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그는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통해 인간 실존에 대한 본질적인 규정을 내리고 있다.(Martin Buber, 1977)

오늘날 문제되고 있는 인간성의 상실이란 삶이 비인격화되어 그것으로 전락하게 된 데 있다 이러한 비인격화에 과학이란 이름의 학문이 적잖은 기여를 했다. 학문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대부분 직접적이고도 관계 지향적이었다. 그러나 학문이 발달하며 특별히 인간에 대한 학문이 발전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여러 가지의 매개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변영인, 2006)

이제 사람은 더 이상 인격이 아니라 생리학적 구조가 되었고 심리학적 대상이 되었으며 사회적인 계급이 되었다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고 그 사람의 조건 때문에 만난다. 결혼을 할 때도 학벌과 집안과 경제력을 고려해야만 안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매개물은 만남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장애물이다. 왜냐하면 모든 매개물이 무너져 버린 곳에 서만 만남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부버에 의하면 인간의 세계에는 두 가지의 근본적 다른 질서가 있다 그 하나는 <나-너> 의 근원어에 바탕을 둔 참다운 대화가 이루어지는 인격공동체이며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자기의 욕망에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 곧 그것으로 밖에는 보지 않는 <나-그것> 의 근원어에 바탕을 둔 오직 개체로서의 집단적 사회이다. 여기서 제시된 만남이란 부버가 말하는 인격적인 관계의 전형적인 통로이다. 부버는 긍정적으로 <나-너>관계의 힘을 회복하여 점점 더 그것으로 굳어져 가는 세계를 깨뜨리고 녹임으로써 다시금 근원적이고도 실재적인 생명을 되찾으며 너와 나와와 관계로서의 전체를 회복하자는데 사색의 목표를 두었다.(Martin Buber, 1977)

그렇다면 성은 이러한 총체적 인간다움에서 어디쯤 자리하고 있을까? 또 다른 경우는 가장 비인간적인 수치로서 성이 추락하기도 한다. 총체적인 인간다움에서 따로 떨어져 나간 목적으로서의 성 혹은 생식을 위한 도구로서의 성은 사람과 사람을 인격으로 만나게 하기보다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성은 매개물로서의 역할을 하여 서로를 고립시키는 작용을 한다. 인격에서 떨어져 나간 성은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총체적인 너 로 파악하게 하기보다는 성적인 대상으로서의 그것으로 전락시킨다. 성이 총체적인 인격에 관련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은 총체적인 인격 중에서도 더 더욱 심도 있는 인격적 회복과 관련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기준도 성애의 형태에 따라 다른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다.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성(실사 동성애가 아니라 고 하더라도)은 그 자체로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그것들은 모두 필수적인 가치 즉 인격성에 의해 검증 받아야 했다. 물론 여기서 현대사회에 만연한 문제의 성이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동성애 문화는 성적인 착취의 문화였다. 그리고 일부 현대사회의 성문화도 성적인 욕구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인간 상호간의 인격적인 만남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키며 사회공동체의 가치마저도 파괴시켜 마침내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오직 성적인 대상으로서의 그것 이상이 안 되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비정상(Abnormal)의 성문화는 그 어떤 것이든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고 제도적으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결혼 안에서 합법화된 성외의 모든 이성애에 면죄부를 쥐어주는데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도 밝혔듯이 모든 성은 잘못된 그 어떤 종류의 성(性)이 판단 받은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강도로 검증 받아야 한다. 혼외정사의 문제, 성폭행의 문제, 난교(Free sex), 수간(獸姦)의 문제 수음(手淫)의 문제, 가학(加虐)의 문제 모두가 마찬가지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혼안의 성 또한 여기에서의 예외 일수가 없다. 필자가 성이 결혼 안에서만 정당하다고 주장한 이유는 결혼자체가 정당성을 담보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 밖에서는 어떠한 성도 인격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혼의 성이 잘 유지되고 건전하게 사용되도록 다가오는 시대와 젊은이들에서 그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훈련시키며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돕고 격려해야 함이 너무나 필요하고 마땅하다.

1. 성의 사실과 실재(Facts and Reality of Sexuality)

우리는 위와 같이 오늘의 성 문화에 있어서의 윤리성을 살펴보면서 우리현실의 사실과 실재에 대하여 사려 깊게 보아야 할 절실한 필요를 느낀다.

예컨대 미술가 쇠라의 작품 중 “그랑자뜨의 일요일 오후” 라는 그림을 그 실례로 들어 보기로 한다. 그 미술작품은 점묘법을 통해 무수히 찍어낸 그 색점들은 단순한 색의 집합 이상이다. 4여년에 걸친 습작과 연습 그리고 색에 대한 연구가 집대성 되어 마침내 완성된 작품이다. 또 하나의 다른 예화로 심훈의 “상록수”를 읽어보았을 때 여인의 희생은 전에는 없던 희망과 미래를 한 마을 공동체에 심어 주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서드 오는 폰 트랩 대령과 마리아의 키스 장면을 기억하면서 그 키스가 성추동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두 사람과 일곱 아이들 여인의 관계가 관여된 인격적인 사 폰 의심할 수 없다. 가뭄 극명한 극명한사의 실천! 예수님의 십자가 여걸을 알고 있는가? 그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새롭게 씌어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실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기 까지 했다. 사실(facts)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는 바뀐 것이라고는 없었다. 사회는 여전히 암울 했으며 소망은 꺾였다.

그러나 한 사람의 희생은 그 암울한 가운데서 구원의 희망을 열어주었다. 실재(Reality)란 이런 것이다. 성경은 이러한 실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걸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經)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후 4:16~18)

너와의 만남은 은혜로 이루어진다. 찾아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며 내가 너를 향해 저 근원어를 말하는 것은 나의 존재를 기울인 행위요 나의 본질 행위이다. 너는 나와 만난다. 그러나 너와의 직접적인 관계에 들어서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관계란 택함을 받는 것인 동시에 택하는 것이며 피동인 동시에 능동이다.(Martin Buber, 1977)

역사와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성이 아닌 실재성이다. 가치와 의미 또한 실재에서 연원한다. 초월 없는 의미 부여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초월로예로의 만남이 인간을 인간되게 한다. 그러나 인간됨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윤리적으로 그르다고 평가한다.

성 문제는 치명적인 동시에 일반적인 문제이므로 체계 세우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인격에 있어서 성이 갖는 중요성의 정도 또한 사람과 사람사이에 관계를 맺는 방식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돈을 매개로 관계 맺는 것과 피를 매개로 관계 맺는 것과 출신지역을 매개로 관계 맺는 것과 그리고 성을 매개로 관계 맺는 것이 서로 일반이라고 이야기 하기는 힘들 것이다. 과연 성의 실재성이 인간의 인격형성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내가 갖는 성의 모든 것에 결혼 안에서 상대방과의 인격과 헌신과 책임의식을 통해 인격적 관계를 갖는가? 그 역할의 비중에 따라 성윤리의 중요성이 결정될 것이다.(변영인, 2006)

2. 현대 성 철학과 윤리에 있어서의 오픈된 쟁점들

위에서 우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 세계관을 기초로 한 철학과 윤리를 살펴보고 또한 그에 동의함을 밝힌다.

(1) 정치론(Politics)적 관점에서 본 성

60-70년대 불란서의 Machel Foucault의 괴변과 사단적 논제를 통해 오염된 성의 논리가 배포 만연됨을 맞닥뜨리게 된다. 이제 그의 죄 된 논리의 이슈들을 살펴본다.

성의 정치이론이란 성해방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성해방은 성을 인간의 본질로 본다. 그리고 성을 일반적으로 죄악시하고 회피하며 억압하는 제도적 관습적 인식적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성 역할을 회복하는 취지에 이론이다. 즉 성에 대한 지나친 억압이 성을 왜곡시키고 병적인 현상으로 만들었으므로 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함으로써 그 왜곡을 치료해야한다는 것이다. 성을 개방해서 생각해보자는 의미로써 성의 개방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용하고도 유일한 방법론으로 사용된다.(권장희, 1995)

성을 억압하거나 성을 개방하지는 두 가지 상반된 논쟁은 성정치에 있어서는 동일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즉 이들 상반된 주장들은 동일하게 자본주의 성의 메커니즘 즉 남성과 여성의 구분 가족제도 이성애 중심주의 사적인 성등을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정치란 개방이나 탄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 뒤에 숨어있는 정치적 권력이 무엇이나를 다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또 다른 숨은 의도를 가진 것으로 확대되어 사용, 해석되는 것이 문제이다.

(2) 푸코의 계보학(Michel Foucault's genealogy)에서 본 성

성정치 논쟁은 60-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성은 은폐된 권력을 연결하여 가장 영향력 있게 논한 사람은 프랑스의 미셸 푸코이다. 8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의 이론은 각종 성담 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Michel Foucault, 1995) 현대 사상가 중 니체의 반이성적 사상을 가장 일관되게 발전시켜 온 푸코는 자기의 관심을 니체와 같이 권력에 집중시킨다.(Kenneth Baynes, 1987) 즉 바람직한 성 을 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다 단지 존재하는 것은 각 시대마다 문화마다 교묘히 은폐된 권력뿐이다. 즉 그는 인간이 겹혀히 받아들여야하는 절대가치 기준인 하나님의 성을 향한 주도적 의의를 거부하고 인간 자신을 위한 편리와 아집을 체계화시키면서 수많은 논리를 괴변화 시키고 하나님 자녀들인 인간에게 시대사조적 흥미와 무질서로 몰아넣는다. 특히 그는 빅토리아 왕조의 청교도주의나 이른바 부르주아적 금욕주의는 대대적인 담론에의 선동의 역사에서 오히려 반동적인 사건이고 성의 담론 화에서 삽화적인 현상이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는 성에 대한 억압의 가설을 자세히 살피고 그것이 출현한 배경 또는 출현시킨 권력의 책략을 드러냄으로써 그 것의 허구성을 논박하고자 했다.(Michel Foucault, 1995)

푸코는 계보학적 접근을 통해 역사적으로 불연속적인 사실들을 나열하고 통념적으로 받아들여 온 유의미한 가치성을 허구성으로 주장하면서 기존 가치 체계의 해체를 꾀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작업은 해체로 끝나지는 않는다. 그는 이 해체의 잔해 속에서 다시금 당위성의 의의를 지어낸다. 그는 기존에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지던 가치는 틀렸다는 당위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푸코의 이론을 좇는 동성애자들은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여러 동성애의 사실들을 나열함으로써 현재의 당위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사실들을 나열했는데 그는 그 사실들을 나열하는 타당성을 현재의 당위가 권력에 의해서 조작되었다는 가설을 내세워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당위가 과연 권력에 의해 잘 설명되어 지는가에 대해서는 다분히 회의적이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했듯이 푸코는 가정이란 제도는 자본주의의 노동력 재생산이라는 구도로 보았다. 인류의 민주화의 대장정이라는 구도 하에서 보다 더 풍성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의 의도로 지정된 하나님의 제도이다. 이로 인해 인간 상호 관계를 각종 권력의 상호관계

로 파악할 것이냐 아니면 인격이 수반된 상호 신뢰의 관계로 파악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추론의 결과는 매우 다른 결과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고대 문화는 사실로 인정하는 반면 동성애를 억압했던 근대 문화는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대 사실에서 당위성을 도출했다면 그 동안 인류가 반동성애적 윤리를 주장한 문화에서도 당위성을 도출했어야 했다. 그들은 해체에 급급한 나머지 반동성애 문화의 사실이 어떤 당위성에 근거해 있는지 고려해 보지도 않았고 검증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사실선택은 다분히 자의적이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기존의 당위성과 반대 증거를 위해 제시한 각종 사실성들 그리고 그 사실성들에서 도출해 낸 새로운 당위성 사이에는 엄밀한 불연속이 존재하고 있다.

(3) 현대 사회의 왜곡된 시각

우리 사회에 현재 만연한 왜곡되고 병리적 성문화는 어디까지 왔는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출시된 음란물 비디오 중 50여 편을 무작위로 추출해 주제의 경향을 분석해 본 결과 반인류적인 주제 살인, 폭력을 다룬 주제 몰래 카메라식의 엿보기 심리를 자극한 주제 등이 문제점으로 조사됐다.

현재 약 200만 명의 고정 마니아를 확보하고 있는 음란물의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이미 그 위험 수위를 넘었다. 시대적 조류에 야합한 하위문화에 편승된 이러한 사회 문화는 그 정체성을 잃고 사회와 사람을 역병에 빠져 자멸시킨다.

이제 심각한 이 상황에서 법률적 판단도 동원되어 진다. 그러나 법률판단 이전에 사회의 이슈(issue)가 되어야 하는 기준의 문제인 억압된 성문화는 끊임없이 상품화 된다. 동물도 보존 본능을 위해성을 관리하지만 인간도 성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인간은 성을 스스로 자신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존재이다. 사실상의 성의 문화적 사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발전해왔다. 그러나 성(성)의 표현방법이 문제이다. 현대사회의 산업화의 힘으로 대중매체의 발달은 개개인의 숨어있던 것이 영상화되었다. 아울러 공론화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공론화의 방식이 문제이다.

현대인의 성적표현에의 자유에 대한 의식은 끊임없이 가능한 한 최대한 개인의 자유를 신장(성경적 근거를 둔 철학의 부재)하는 것이다. 현대인은 또한 성에 대한 미풍양속의 개념도 인간의 욕망을 향한 사회적으로 몰아 통제로 표현하려는 왜곡된 병리적 경향성이라고 몰아세운다. 또한 우리가 규제 해야 할 음란성 판정 여부조차 규제의 한계를 모호하게 두므로 명확한 구분이 어렵게 만들어 놓는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으로 여겨져 왔던 “성”이 마침내 사회적으로 보다 깊이 세속화 되어 담론화 하기에 이른다. 특히 성의 음란성이 절대적이고도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진 점을 교묘히 악용해 개인적이고도 은밀한 영역에 은둔해 있던 동성애 문제 또한 과감히 드러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동성애 논쟁에 타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했다. 이전 동성애를 무턱대고 비난할만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단호하고도 극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급증하는 가정해체와 이혼 등 이미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버렸고 책임, 인격, 신뢰와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성이 아닌 쾌락 추구의 도구로서의 타락한 성을 향유해 왔다. 동성애자들은 이러한 약점을 비집고 들어왔다. 진리는 그 결과와 과정으로 증명되는 것인데 결혼으로 대변되는 이성애는 그 진리의 결과적 가치를 모조리 잃은 상태에서 공허한 외침만을 되풀이 해왔던 것이다.

이것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성 철학과 그 윤리성을 대신하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성의 의미를 온통 변질되도록 부추기며 시대와 사람을 오염, 파괴 파멸시키고 있다.

IV. 기독교 성윤리

전문성을 가진 사회과학적 접근으로써의 성의 윤리와 신앙적 책임성을 가진 기독교 성윤리와 그 차이점은 어떻게 다른가? 이 둘 사이에는 얼핏 보기에 기술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표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상담자와 사회과학적 두 가지 점에서 그 구분을 둘 수 있게 된다.

첫 번째 차이는 기독교 성윤리는 실제적인 것이다. 많은 교인들은 그들의 심층적인 종교적 배경으로 개인적 성 의식 및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찾아온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성(性)과 종교적 가르침이 얽힌 교인을 돕는데 특별히 유능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 종교적이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쓰였는데 그 이유는 성의식과 그 개념이 기독교적이며 또는 성경적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제한을 받을 때 문제는 특별한 성경적 가르침 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종교라는 억지로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왜곡 시킨 잘못된 견해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 성교육 지도자보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잘못된 견해를 가려내는 있어서 한 개인의 삶의 실제 차원과 성경의 관점을 둘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뢰를 받아야 하는 보다 폭넓은 차원을 소지해야 한다고 보겠다. 두 번째 큰 차이는 성(성)에 대한 전제 조건과 연결된다. 성경은 인간에 성에 대해 절대적 견해를 제시하는바 성(성)에 대한 전제 조건과 연결된다. 왜곡된 틀 속에 (성)는 결혼을 통해 한 가정(히13:4)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가장 깊이 있는 책임성, 헌신, 인격적 신뢰라는 것과 연루되어 있다.(Lawrence, J Carbb, 1994)

성경은 성에 대해 귀하게 평가한다. 성경은 성에 대한 높은 수준과 질이 성취해보도록 하는 헌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온전한 성적 연합을 누리기 위해서 성 은 반드시 결혼 안에 두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Ed Wheat, Ggye Wheat, 2000) 성을 배우자가 그 상대 배우자를 향해서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평생 헌신해야 할 가장 인격적으로 심오한 헌신이라고 가르친다. 대부분의 이혼이나 부부의 불협화음은 성 을 사용한 즉 혼외정사를 볼 때 외도라는 행위가 문제 됨이 아니고 혼인을 너와 나의 신뢰를 전제로 한 인격적 차원에 대한 배신이라는 점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이다.

기독교 지도자가 성과 성욕에 대해 이러한 견해를 전제로 하여 창조자로부터 부여받은 귀한 선물로 여길 때 그들은 세상과 그 의식의 근원을 분리한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장벽이 없는 자유롭게 열린 관계를 경험하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고 표현한다. 그들의 관계는 힘이나 위협이나 사회적 신화나 문화적 차이에 기초를 두지 않았다. 후에 성경은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새로워진 아담이라고 언급하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다고 가르친다.(고전 15:45 ~50)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성에 대해 수치심 없이 바람직하게 자라게 하는 잠재력이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회나 문화가 성 에 대해 많은 부정적인 왜곡을 하게 만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 의 개념을 제거한 단지 인간의 실존적 의미로서의 성을 다루려는 의도만 존재하게 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본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과 그 차원을 달리한 하나님의 창조 질 서적 의도를 깊이 인식한 성 의 철학을 선행하고 소유할 때 서로에 대해 자유롭게 열린 삶을 살 수 있을 때이며 우리는 모두 성적으로 가장 자유롭게 만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초한 견해가 성윤리로 자리매김 되어 모든 철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분명히 제시된 검토하고 그것을 교육함은 중요하다.

이 기독교적 윤리성을 원리들은 성 에 대한 이해의 기초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다. (Lawrence, J Carbb, 1994)

1. 창조 질서와 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의 피조물 및 피조적 존재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의도에서 제외 된 존재가 없다. 인간 남자와 여자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창조되었고 출생되어진 성적 존재임을 인정한다. 성경은 성적 기능을 위한 지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성적존재와 결혼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 있게 또한 책임성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을 포함 한 육체를 하나님의 의도를 확인 할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의 타락 이전에는 죄 없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일부분이다. 우리의 성을 확인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 26~2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

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특별한 모양과 디자인으로 창조하였다. (창5:1-2와 9:6)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물도 성이 구분된 존재로 창조되었다. 동물들도 물론 출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다. 그러면 인간의 성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존재로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관계적 욕구와 수용력이 있으나 동물은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 의지나 인격적 관계로 서의 성이 아닌 단지 발정기에만 성을 사용하는 단순한 생식의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는 자의식속에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고 자의적으로 행동하고 관계 속에서 반응하고 상호 영향을 준다.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성을 인정하는 기초가 되었고 결혼에서의 성교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결혼의 책임성을 견제하는 안에서만 즐기기 위한 축복임을 가르쳐준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13:4)

그러나 성적 연합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언급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와 수치를 놓이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창세기 2장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지로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성교가 우리의 불순종한 죄악 된 인간의 본성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디자인의 일부라는 것을 말한다. 결혼 내에서의 성적 연합은 죄의 수치가 없는 축복인 것이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개방되어 있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창2:25)와 같은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완전히 열린 관계를 가졌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 했고 대화했다. 결코 여기에서는 죄가 이 열린 관계를 방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성은 우리를 벌하시거나 제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다. 그것은 '바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다. 그는 우리의 인간됨을 아시고 또한 인간이 갖는 죄악도 아신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그의 명령과 지시는 이 모든 지식을 설명하였다. 이 명령들을 어길 때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성적 범죄는 우리가 순간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초가 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지침대로 행하지 않을 때 성은 죄가 된다.

인간의 성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디자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택하셨는가를 상징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적관계를 사용했음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창 3:7-22) 불순종은 하나님과 인간 남자와 여자 사이의 열린 관계를 막는다. 창세기3장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고 말씀하고 있음에서 보듯 그들이 전에 죄가 없을 때는 수치스러움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서로 수치를 느끼고 자아를 의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었던 완전한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죄의 결과로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의식하게 됨으로써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를 영구히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예비해 주셨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는 수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히브리어로 안다(창4:1 KJV)는 성교를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언급할 때 쓰였던 것과 같은 단어이다 또한 성기에 대한 단어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결혼 안에서 부부의 성적 연합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상징한다고 본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연관되길 원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 예화인 성적 연합의 개념은 구약성경을 통해 더욱 발전했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때때로 그의 신부라고 묘사하셨고(사49:18, 렘16:9) '간음'이란 단어는 다른 신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묘사하곤 했음을 성경에 명시하셨다.(렘7:9,23:10 겠23:37 사 57:3)

불성실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낭만적이고 감각적인 묘사가 에스겔 16장 8절~19절에서 발견된다. 이 구절은 그녀를 물로 씻겨주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히고 남편이 아닌 낯선 사람과 간음하게 한다. 이처럼 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관대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로 나를 여호와인줄 알게 하리니(겔16:60~62)이며 호세아서 전체는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설명한다.

성적 관계는 이사야 62장 5절에서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열방을 상징한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위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러한 성적 상징은 신약성경에도 계속된다. 거기서는 교회(믿는 자의 몸)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된다. 이 가르침은 에베소서5장21~25절에서 가장 명확하게 발견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하듯하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인간의 성 경험에 대한 구약성경의 기록 즉, 둘이 한 몸을 이룰지이다. (창2:24)는 말씀은 육체적 연합 이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육체적, 정서적, 영적차원을 망라한 신비로운 연합을 말하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이러한 존재로 연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성의 연합에 관한 성경적 견해이다.(Lawrence, J Carbb, 1994)

2. 성경에서 본 성(性)의 성격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 하시리라”(히 13:4)

(1) 성의 생명성과 쾌락성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성’이라는 명제를 내놓았을 때 그들의 뇌리 속에는 이미 오래전 무의식 세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성의 행위가 머릿속에 장면으로 떠오른다. 오랜 세월동안 하나님의 성을 향한 주도적 성격인 생명에 대한 의식은 망각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성은 회노의 쾌락과 창조질서의 생명성 속에 무엇이 우선이며 무엇이 본질인가에 대한 왜곡된 의미를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성의 가장 우선순위인 생명성은 이미 성의 쾌락성 속에 그 본래의 성격을 빼앗겨 버렸다. 여기서 기독교지도자들은 성의 생명 성을 우선시 할 수 있도록 현대인의 의식구조에 생명성의 지엄한 우선순위를 주지시켜야 할 필요가 극명하다. 과연 그렇다면 성의 그 엄청난 쾌락 성을 어떻게 의미하고 자리 매김 하여야 할 것인가? 이것 역시 성의 생명성의 우선순위와 맞물려 생각할 수밖에 없다. 성의 행위에 따른 쾌락성은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쾌락보다도 가장 큰 쾌락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쾌락성을 생명성과 연결시켰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신다.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그 부모의 일생동안 자녀의 생명을 향한 헌신이 동시에 요구되며 그 헌신은 그 자녀가 장성하여 한 성인으로서 생명력을 다시 기능할 때까지 부모의 일생을 바쳐야 하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작업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엄청난 성의 생명성위에 사랑을 함께 주시기 위해 성의 쾌락성을 허용하신 것이다. 한순간의 쾌락은 결코 성행위와 성의 생명성을 향한 단순한 의미로서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성 개념 속에 성의 쾌락은 생명적 위에 수반된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바이다. 그러므로 성의 생명성과 쾌락성은 단호히 그 순위가 생명성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손봉호, 1996)

(2) 성의 일반성과 치명성

성의 성격에는 일반성과 치명성을 들 수 있다. 성의 일반성을 보면 일단 생물학적으로 성숙한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반적 축복이다. 이 일반적 축복인 성은 마치 그 누구에게나 물과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신 것

처럼 누구에게나 주어진 축복이다. 그러나 마치 오늘날의 오염된 물과 공기를 마시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치명적으로 상하게 하는 것처럼 성은 사람을 가장 쉽게 가장 처절히 망가뜨릴 수 있는 치명성을 갖는다.

이것이 성의 또 다른 성격일 수 있다.

(3) 성의 사회성

성은 올바른 사회성을 요구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임과 아울러 그 어떤 동물보다 고등하며 사회성을 중시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인간관계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성을 누리하고자 하며 그 바람직한 사회성의 범주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회심리학적 존재이다. 오늘날까지 가장 바람직한 결혼 형태는 일부일처의 사회 계약적 조건인 결혼식을 통과의례로 하는 결혼의 사회성을 인정해 왔다. 이것은 얼핏 인간의 삶을 합리적으로 감당하려는 단순한 사회적 제도인 것 같으나 그 근본적 원리는 성경에 기인하고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 성경적 근거를 의미 있게 인정하기보다 인간의 편리와 상황에 따라 보다 편리주의와 자기중심적 개인주의의 편리를 선호하고 있다. 세칭 항간의 십대들 용어는 동거, 계약결혼 혼외정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유목적적인 결점을 심히 왜곡시키며, 자신들의 편리와 쾌락을 위해 그 본질을 뒤집어 놓은 결과이다 결국, 동거나 계약 결혼 등은 헌신이라는 결혼의 인격적 요소는 배제하고 유사시의 도피방법으로 비상 탈출구를 합법적으로 두면서 자신들을 서로 기만하고 성의 유희만을 즐길 수 있는 방법적 행위로 결말 지어 버린다고 보겠다.

3. 일치와 그 풍요로움-성경적 기대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근본적인 것이며 의식적 차원에 뿌리를 박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그 차이는 원초적으로 생명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이 자기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1:27) 그리고 2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 이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한 인격의 독특성이 유지되면서 완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배우자의 인격의 독특성이 유지되면서 완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배우자의 인격의 독특성과 결합하는 것이다.(G. R. Collins, 2002) 즉,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분명 그들의 신원은 무엇보다도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명백히 규정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불림을 받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그들이 서로간의 사랑을 통한 일치와 결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르는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공존과 결합의 관계로써 그들 각자의 신원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

남녀의 육체가 서로 결합되도록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남녀의 육체가 지니고 있는 혼인적 의미에 대해 말씀하신다. 창조의 신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상호 선물의 차원에서 결합되었다. 그들은 서로간의 자유로운 선물을 통해 인격 전체의 내적 풍요성을 드러내 주는 자신들의 육신에 부여된 결혼적 의미를 깨달았다. 또한 창세기는 남녀가 하나님을 등짐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합에 현존하시지 않게 되었고 그들의 최초의 순수성이 상실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부터 그들은 내적 공허를 느끼게 되었고 고뇌를 체험하게 되었으며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었다.

남자가 여자에게 모든 탓을 돌리며 그녀를 지배하려 들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그들의 결합은 깨졌고 서로 적대적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한 몸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온갖 각기 자기 자신만의 일에 몰두함으로써 폐쇄적이고 고립된 존재로 변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내적 공허를 권력과 재물, 본질을 왜곡한 혼외정사 기타 또 다른 관계 물질 등으로 세우려고 애썼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개방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서로 나누며 주고받고 하는 사랑과 친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의 현존을 자신 안에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서로를 끌어당기게 되는 행위는 또 다른 고립 즉 죽음이라는 고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요 시도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성에 대한 이끌림이나 개인적 선택의 욕구보다 더 강한 생명 전달의 욕구가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성은 무엇보다 생명, 즉 출산에 우선적으로 지향되어 있다. 여자의 신체는 어린애의 최초의 거처가 되도록 마련되어 있다. 남자의 신체는 여자가 수태하도록 하게끔 만들어져 있다. 여자의 성은 심리학적으로 좀 더 내면적이고 남자의 성은 좀 더 외면적이다. 여자의 신체는 출산이라는 역할 때문에 남자의 신체보다는 격렬한 활동에 덜 적합하도록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볼 때에는 여자는 임신 기간에 또 자녀를 양육하는데 대부분 힘을 소모하게 된다. 이런 일은 남자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여자는 자신의 신체 안에 이미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요소를 지니고 있다. 즉 처음부터 그녀 안에는 존재하는 난자들이 그녀와 더불어 노쇠해간다. 45세 내지 50세가 되면 여자의 출산력은 소멸하고 만다. 남자는 생리적으로 출산력의 소멸을 체험하지 못한다.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생리적 차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화적 역할에 초래되는 결과들은 과연 정확히 무엇인가? 어느 것이 문화적 차원에서 비롯하는 것이며 어느 것이 생리적 차원에서 비롯하는 것인지를 가려내거나 또한 그것들 상호간의 관계를 규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처음에는 출산과 관계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기능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남자는 가족보호와 사냥하는 일을 했고, 여자는 가사와 자녀 돌보기를 했다. 이와 같은 역할의 분명한 분담은 각자의 책임에 대한 의식을 명백하게 해주었으며 또한 두 사람 모두에게 평화로운 조화를 보장해 주었다. 그들은 각자 자기가 해야 할 바를 잘 알았으며 그 결과 서로간의 일치된 결합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거나 여자에 강한 남자의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자들은 이따금 일은 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노는데 가산을 탕진하기가 쉽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노후에는 여자들의 눈총을 받아 위축된 생활을 하게 된다.

반면에 여자들은 열심히 하고 강인해진다. 그들은 애정적으로 자녀들에게 더욱 다. 결혼을 해도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면 항상 어머니를 찾게 된다. 이와 같은 악순환은 마침내 인격적 책임과 신뢰성을 근거로 하는 부부가 되어야 할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균열을 초래한다. 우리는 성(性) 본능이 인격을 그 존재의 본질에 결합시키는 아름답고 잠재력이 있는 실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풍요한 결실의 도구요 자아 표현의 특별수단이다. 그것은 결코 피상적 실체가 아니다. 부부의 결합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 상호 보충성에서 그 뿌리를 깊게 하며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생활계획을 충만히 나누는 인격적 의지에 힘입어 배양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합은 인간의 깊은 자아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본질적 욕구의 결실이요 표지이다.

유일한 친구로서의 남편이나 부인은 단순히 일상에서 흔히 쉽게 운동에서 만나는 파트너와는 다르다.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가장 깊이 의탁할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선택한 사람이다. 성관계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낳는다. 그 사랑의 행위에 내포되어 있는 증여와 일치는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상호증여를 통해 남녀 모두가 보다 더 깊이 자신들을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께 개방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서로에게 우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현존의 표지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상호증여와 육체적 관계에 의한 새로운 인간관계는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 관계의 표상으로 만큼 매우 깊다. 남편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음을 알고 있다. 참으로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해준다고 본다.(엡5:25,3-32)

참으로 진실된 기독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성 본능을 부정하거나 죄악시 하거나 평가 하지 않는 인격적 결합에 근거하고 있는 영원한 계약 관계로 인식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충만하고 인간답게 실현될 수 있는 정녕 아름답고 의미 깊은 실체로서 받아들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성은 사랑과 우정 배움과 친교의 표지다. 바로 그렇게 때문에 성은 인간의 삶 전부와 관계가 있다. 성관계는 일치의 최정상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 최정상은 반드시 일상적으로 함께하는 삶의 바탕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것은 가정이라는 환경을 요구한다.

성 본능의 사용을 통해 사람들은 마음과 몸을 서로서로 나누게 된다. 몸은 마음의 친교를 걸음으로 드러내는 자리

다. 한쪽 편에서 베푸는 몸은 그가 사랑하는 다른 한쪽 편의 가장 소중한 몸이 된다.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적인 계약을 필요로 하며 어떤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몸을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생똥쥐베리의 어린왕자에서 여우는 우리는 우리가 기른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상대방의 몸과 마음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나약하고 지쳐있을 때도 사랑해야한다. 육체를 나누는 사랑은 상대방과의 만남을 즐길 뿐만 아니라 그가 어려울 때 받쳐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기를 요구한다. 그 사랑은 일상생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봉사와 애정의 행위이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에게만 국한된 정당한 행동을 통하여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성은 결코 단순히 생물학적인 것만은 아니고 인간의 가장 깊은 존재와 관련된다. 성은 남자와 여자가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사랑의 묶음을 할 경우에만 진정으로 인격적이다. 온 몸으로 자신을 내어 준다는 것은 만일 그것이 현재적 차원을 포함해서 전 인격이 걸려 있는 완전한 자기 증여의 징표와 결실이 되지 못하면 또 어떤 것을 보류하거나 미래에 달리 결정할 가능성을 유보하고 있다면 한낱 거짓에 불과할 것이다. 하나님적 계약을 통해 실현되는 성은 생활에 봉사한다. 즉 그것을 통해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정은 자녀를 길러낸다. 여기서 성은 그 의미를 완성시키게 되며 남자와 여자를 새로운 인간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게 한다. 즉 남자와 여자는 성을 통해 자신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능력, 연약한 어린 존재를 위해 봉사할 능력 부모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자신들이 아닌 다른 실체에 자신들을 개방하게 된다. 그들은 이러한 개방을 통해 그들을 폐쇄적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들만의 관심거리, 그들만의 쾌락 등에서 해방될 수 있다.

결혼 내의 생활과 유리된 성관계에서는 뿌리도 결실도 없다. 다만 현실과 단절된 순간적인 흥분, 접촉, 쾌락만이 있을 뿐이며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도 의무감도 요구되지 않는다. 또 그저 하나의 유희일 뿐 신적 계약의 표지도 애정과 신뢰의 행위도 되지 못한다.

혼인 계약을 진실 되게 이행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그 어려움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신혼여행이나 결혼의 단꿈에 젖어 결혼계약이 내포하고 있는 자기포기와 상실의 고통스러운 면을 간과한다. 한 사람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려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자유는 제한된다.

이와 같은 자유의 포기 내지 상실은 경건한 혼인 계약을 충만히 실현시킴으로써 부성 또는 모성의 자유를 발견하고 자신이 사랑 받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새로운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요청들이다.

남녀 간의 깊고 친밀한 관계는 흔히 거의 도취되어 버릴 듯 한 충만한 기쁨으로 시작된다. 그들을 고립시켰던 마음의 장벽들은 모두 무너지게 되고 자신을 드러내기에 방해가 되었던 모든 공포감과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 바로 이런 까닭에 남자와 여자의 결합은 성사(聖事)이다. 그것은 교회에서 선포되고 또한 확인된다. 그것은 예수께서 세우신 거룩한 표지로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합 속에 현존하시며 언제나 부부들을 도와주신다. 그 분은 그들이 결혼관계를 통해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공유(Share)하도록 도와주신다. 즉 서로서로 감추는 어려움들을 공유하도록 도와주신다. 즉 서로를 감추고 일어나 다른 활동으로 도피하거나 공격적 또는 침체적 분위기에 빠져드는 대신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를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깊은 일치를 이루도록 도와주신다. 그리하여 일치의 깊은 기쁨만이 아니라 용서도 생활화 할 수 있게 해주신다.(최영민, 1996)

결혼의 생활은 남녀 결합의 근거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는다. 그것은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나 상대방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단순한 인간적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맺어주심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다. 그 결합의 근거는 하나님아버지께서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그들이 입은 상처와 심리적 인간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성삼위적 생활과 자비로운 용서의 사랑에 참여하도록 하고자 하시는 원인에 있다. 그러므로 참된 부부생활은 그들의 결합에 타격을 주는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용서에 근거한다.

일치를 향한 그들의 여정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상호 용서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지로서의 나눔의 축제는 애정과 사랑의 일치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이러한 정신 육체적 사랑의 결합은 아

직 남아 있을지 모르는 모든 장애 요인을 완전히 제거해 주고 두 사람을 한 몸, 한 마음 하나의 영혼과 정신으로 묶어준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결합은 일치를 회복한데 대한 감사의 행위인 성찬의 행위로 변화된다.

오직 예수의 현존이 의식 될 때만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일치 할 수 있고 그들에게 깊은 내적 평화를 경험케 해줄 수 있다. 사실 그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사랑이나 자기 본위 쾌락이 아니라 그들을 남자와 여자 각자의 고립에서 일치로 이끌어줄 완전하고도 영원한 사랑이다.

V. 결론

본 연구자는 기독교 세계관적 접근으로써의 바람직한 성에 대한 그 윤리성 기독교 성의식의 상담자와 일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대 사회에 만연한 실제적 면모를 통해 하나님 앞에 통한해 하는 현상을 목도함을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주장하는 바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성(性)문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째, 책임감을 투철히 가져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것들을 욕되게 하는 이 시대와 문화 사람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요구됨을 절감할 일이다. 셋째는 진정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의지하고 싸워야 할 의지와 그 회복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필요 절실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믿음과 열정, 책임감 거룩히 분노함도 중요하지만 성(性)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이 시대 사회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실력과 대응책에 대한 연구가 분명히 절실하다. 온전히 준비됨과 얹 그리고 지식이 없이 규범과 규제를 제시할 수 없다. 거대한 구조악 거대세력인 이 시대와 절대악을 어떻게 대응하고 제거해 버릴까? 에 대한 진정한 준비와 실현은 기독교 세계관적 성에 대한 윤리를 규명코자 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시대적 역사적 사명임을 분명히 밝힌다.

참고문헌

- 강지원(1999), "한국 사법 연수원 청소년 성범죄 연구보고서"
- 권장희(1995), "성을 지키는 파수꾼", 『기윤실 순결 운동 소개』, 28(4), 36
- 변영인(2006), "기독교 상담과 교육", 『복음과 상담』, 5(6), 163-167
- 손봉호(1994), 『건강한 가정』, 서울: 기윤실
- 손봉호(1996), 『대학생이 본 오늘의 문화』, 서울: 기윤실 출판사
- 최영민(1996), 『빛과 소금』, 서울: 두란노 서원
- C.A van Peursen(1987), Culture in stroomversnelling, 강영안 역(1994), 『급변하는 흐름속의 문화』, 서울: 서광사
- Ed Wheat, Gaye Wheat(1997), Intended for Pleasure, 권영석, 송격숙 역(2000), 『즐거움을 위한 성』,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G. R. Collins(1984), Christian counseling, 피현희, 이혜련 역(2002), 『크리스찬 카운슬링』, 서울: 두란노
- Kenneth Baynes(1987), James Bohman and Thomas McCarty After Philosophy : End or Transformation?,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 Lawrence, J Carbb(1994), Biblical Counseling, 정정숙 역(1994), 『성경적 상담학』, 서울: 총

신대 출판부

- Martin Buber(1974), Ich and Du. Heidelberg cerlag Lambert Schneider vywoand dur, 표재명 역(2001), 『나와 너』, 서울: 문예출판사
- Marvin Harris (1995), Our Kind: Who we are, Where we came from, Where we are going, 김찬호 역(1995), 『작은 인간』, 서울 : 믿음사
- Mishel Foucault(1995), 황정미 역 (1996), "미셸 푸코, 섹슈얼리티의 정치와 페미니즘", 서울: 새물결
- Jhon R. W. Stott (1985): Issue facing Christians Today, 박영호 역(1997), 『현대 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